필리핀

대선을 앞두고 정국 혼란 가중

최근 필리핀 정국이 5월 10일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율은 금년 1월 말 달러당 56페소를 경신하며 지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선을 겨냥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부담 가중과 대외채무 증가가 예상되는 등 대선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대선 결과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선 정국 혼란 가중

금번 대선에는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는데, 이 중 현 대통령인 Arroyo후보와 영화배우 출신인 Poe후보가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초기에는 현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속에 Poe후보가 빈곤타파를 주요 선거정책으로 제시하여 국민 대다수인 빈곤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Arroyo후보 보다 앞선 지지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후 국정 및 행정운용 경험이 전무한 Poe후보가 전 Estrada 정권의 폐해를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의원이자 뉴스앵커였던 Castro가 Arroyo후보 진영의 부통령 후보로 나섬에 따라 전세가 반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Arroyo후보는 지지도 상승으로 Poe후보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1] 또한 최근에는 Poe후보가 필리핀 출신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Poe후보의 대선출마 자격 여부를 놓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하여 Poe후보 지지자들은 Arroyo후보 측에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맹렬히 비난하고 있어 정국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

1) 3월 3일 필리핀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Social Weather Station(SWS)는 지난 2월초의 여론조사에 비해 Arroyo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3.1% 포인트 상승한 31.8%를 기록하였고, Poe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7% 포인트 하락한 30.5%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Pulse Asia에서도 Arroyo후보가 31.9%, Poe후보가 31.7%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황이다.

대선 앞두고 환율 불안 추세 지속

이러한 정국 불안은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작년 7월 군내 소장파 주도의 쿠데타 발생 후 한차례 급락한 페소貨는 8~10월 동안 달러당 54.5~55.5페소 범위를 유지하였으나, 영화배우 출신인 Poe가 대선후보로 나선다는 발표와 Moody's의 등급 하향 조정 경고로 다시 하락세를 보여 금년 2월 20일에는 달러당 56.4페소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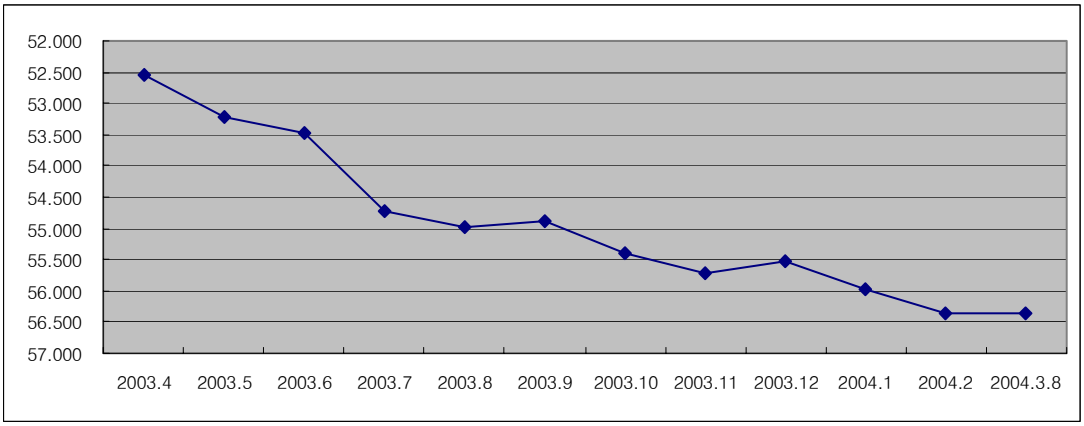
이와 같은 환율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리핀 경제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 외국인투자 감소, 대외채무 상환 부담 증가, 정부 재정적자 확대 등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경제 회복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환율안정을 위한 금리인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환율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와 대외채무 부담 가중

또한 금번 대선 실시로 필리핀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도 재정적자는 37억 달러로 1998년 이후 최초로 정부의 목표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총 GDP의 4.6%에 달하는 규모로 경제규모에 비하여 여전히 과중한 편이다. 게다가 금번 대선을 겨냥하여 정부의 재정 지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금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던 국영전력회사인 Transco 등의 국영기업 민영화 작업도 일단 유보된 상황이어서 2004년 정부 재정적자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재정적자는 정부의 투자 관련 인프라 투자와 관세인하 조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베트남, 태국 등지로의 생산거점 이동을 유발시키는 등 FDI 유입에도 부정적인 영

<그림 1> 최근 필리핀 페소화 동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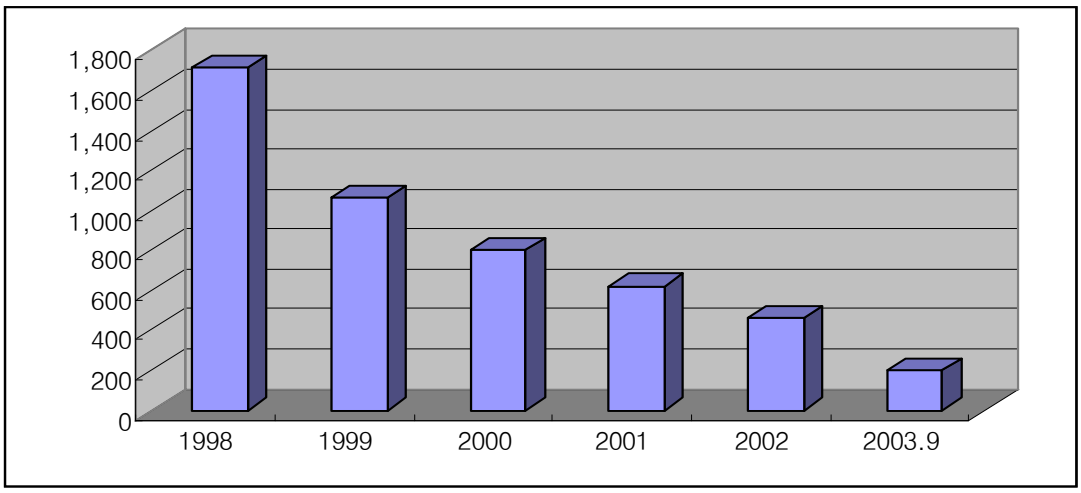


주: 월말 달러당 환율 기준임.

자료: Bloomberg.

<그림 2> 최근 필리핀의 FDI 유입 추이

단위 : 억 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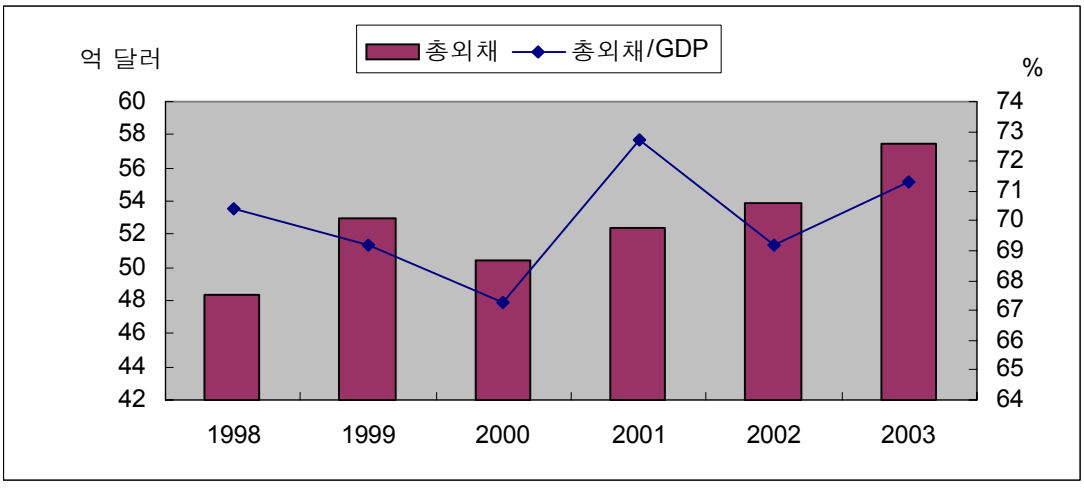


자료: NSCB(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

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과다한 채무로 재정지출의 약 30%를 채무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어 빈곤대책과 사회자본확충 등 경제개발을 위한 필수적 지출 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만성적 재정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세수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방법 보다는 주로 외채발행 등의 임시방편적 방법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어 필리핀의 대외채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총 외채는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외채/GDP 비율도 70% 내외로 필리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림 3> 최근 필리핀의 총외채와 총외채/GDP 추이



주: 총외채(좌축), 총외채/GDP(우축).

자료: GDF, EIU.

향후 전망

필리핀의 향후 전망은 금번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외신들은 만약 Poe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지난 Estrada 정권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 재현과 이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필리핀의 대외신인도 저하 등 향후 필리핀 전망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현 Arroyo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집권 당시 선거가 아닌 쿠데타를 통하여 대통령직에 취임하였다는 미약한 정통성 문제로 인하여 정국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금번 대선의 승리는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Arroyo후보가 승리를 거둔다 하여도 다수표 획득을 통해 확실한 대선 승리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Poe후보 측이 순순히 결과에 승복할지 불투명하여 이는 향후 정국 운용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필리핀의 국가 신용등급은 S&P가 BB, Moody's가 Ba2로 투자적격등급보다 2단계 아래인데, 신용평가기관들은 금번 대선 결과에 따라 등급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바 있어 금번 대선 결과가 향후 필리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류 재 욱】